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임실군, 가구당 최대 80만원(80%) 보조금 지원… 9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임실군이 에너지 자립 실현과 국가적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에너지 정책으로, 일상속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주로, 임대아파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관내 총 55가구를 대상으로 500W 용량 수준의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가구당 최대 80만원(8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청 가구는 자부담금 20만원(20%)만 부담하면 된다.

500W급 베란다 태양광의 월간 예상 발전량은 약 52kWh로, 하계(7~8월) 전력 소비 기준으로 설치 시 가구당 월평균 약 1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하계 기준 4인 가구(월평균 423kWh 소비)에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이 기존 6만7,710원에서 5만6,680원으로 줄어들어 월 1만1,030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인 가구(월 388kWh 소비)는 월 1만1,010원, 1인 가구(월 334kWh 소비)는 월 1만220원의 요금이 절감된다.

임실군이 에너지 자립 실현과 국가적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참여 기업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9월 18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8월 중 사업 공고를 거쳐 10월 2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10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태양광 설비 보급 및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은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군민들이 실질적인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추경 예비심사 돌입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를 상대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미흡한 성과 관리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 오동환 위원장은 발전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시정소식지 집행 잔액 분석을 당부하고, 최형욱 위원은 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미집행률을 지적, 손중열 위원은 능력 있는 공무원 채용 여건 보장, 노인복지 전향적 지원을 요구했다.

마우천 위원은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의 투명한 추진 및 기초연금 반환금 최소화를 촉구하고, 김정현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직 공무원 비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노현이 위원은 기금 사용 목적 적합성 확인, 민원실 모니터 방향 배치 개선을 촉구하고, 전인숙 위원은 청년사업 명시 이월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노인 식재료 지원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영호남 생활체육 혼성2인조 볼링대회 남원서 열려

남원시 숲 볼링경기장에서 영호남 참가 선수 및 임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2026 영호남 생활체육 혼성2인조 볼링대회가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경기 방식은 남·여 2인이 한 팀이 되어 기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부부팀과 두 사람의 합계 나이가 130세 이상이 되는 팀들에게는 총점에 20점씩 가산점을 주어 부부팀과 중장년층의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지난 25일 최영일 군수 주재로 관련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최종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선 9기 공약 실행력 높인다

순창군, 공약실천계획 최종 검토보고회 가져

순창군이 민선 9기 공약사업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순창군은 지난 25일 최영일 군수 주재로 관련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최종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1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실천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공약 확정을 앞둔 최종 검토인 만큼 군민 체감도와 정책효과, 실현 가능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검토 결과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과도한 재정 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공약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또 관광·체육·농업 분야 일부 사업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은 군의 의지만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체관리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공약에 대한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마을방문 건의에서 출발한 '골목 방역기동대 운영'은 현장 대응력과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반면 '공무원 주 4.5일제 시범운영'은 행정인력 여건과 대민 행정서비스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9기 공약은 순창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검토단계에서 본격적인 공약 실행단계로 전환해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군은 이번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추가로 보완하고, 오는 9월부터 주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해 공약 조정사항 등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까지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AI 활용 역량강화 나서

남원시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4일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소상공인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소상공인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이 인공지능(AI)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AI는 홍보·마케팅은 물론 고객관리, 상품기획, 매출 및 상권분석, 업무 자동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짐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이번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AI를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활용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하반기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 추진

남원시는 시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 확보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현재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안등 설치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8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설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부터 10월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를 추진, 총 90여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범죄 취약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야간 보행 안전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보건의료원, 하반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임실군보건의료원이 오는 9월 4일 청웅면을 시작으로 9월 11일까지 6일간 이동검진차량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일정은 △9월 4일 청웅복지회관, △9월 7일 강진면사무소, △9월 8일 오수면 행정복지센터, △9월 9일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9월 10일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9월 11일 임실군보건의료원이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사 등)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진을 통한 암(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등)검진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로, 검진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동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진은 무료로 실시되며,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검진 전날부터 8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하고 이동검진 기간을 놓치더라도 전국 검진 기관에서 연중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